

도, 겨울철 종합안전예방대책 추진

내년 4월까지 24시간 종합안전상황실 가동... 재난우려 안전대책 7개·안전점검 5개 분야 추진

전북도가 '겨울철 종합안전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안전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안전예방대책은 설해와 한파 등 재난우려 안전대책 7개 분야와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5개 분야 등 총 12개 분야로 나뉘었다.

이에 24시간 '겨울철 종합안전상황실'이 가동되며, 도내 전 시·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설 대비 제설장비와 제설자재·제설인력 등 복구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노후주택과 산간마을 등 폭설취약 지역과 시설 등을 중점·관리한다.
또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등 상수 등

파지역에 대한 책임 공무원 지정제를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 신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벌이고, 산불을 대비해 산불 감시시설이 가동된다.
이밖에도 대형공사장(50억원 이상)과 겨울 스포츠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재 등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이고, 연탄재와 김장쓰레기 등 겨울철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등 생활환경 정비도 이뤄진다.
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재난취약 전 분야에 대해 철저한 종합안전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라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 인사혁신대상 '우수상'

전북도의 인사행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대상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지자체 사례에 대한 발표와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서 도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인사혁신대상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혁신운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함으로써 지방인사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인데, 도는 이 자리에서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정년퇴직자 등 중개에 따라 신규공무원이 급속하게 증가하자 신규공무원의 공직초기 적응 지원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실시해 왔다.

공직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험 준비에 있어 현실적 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임용이후 신규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임용 전 기본교육 이수'로 교육 시스템 개선하고 '자체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5월에 '부모님 초청 다짐행사'를 개최해 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향후 역동적인 공직생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임용이후에도 신규공무원 조직적응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도 관계자는 "신규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의 관심이 신규공무원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도정의 한축으로 자리잡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특검 임명장 수여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익산 지방채 상환 위한 중기육성기금 폐지 반대”

좋은정치시민넷, “산단 분양 통한 지방채 해결 대책 마련해야”

익산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은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방자치법과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시설 확장, 기술 개발, 고용 증대, 영업 확대 등의 투자에 자금을 융자해줘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에서 지원하는 2~4%의 이차 보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선호

도를 높이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에는 59개 업체에 103억3000만원, 2016년에는 65개 업체에 121억5000만원”이라며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금도 연평균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융자 현황을 보면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금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대부분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또 “전국의 자치

단체들이 기업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익산시 일반 부채 1449억원 중 72%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산단 분양을 통한 지방채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 1995년부터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방채 1449억원을 오는 2021년까지 상환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를 검토해 10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익산시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의료원 ‘의료질 향상 우수사례’ 대상

‘약제급여 적정성 지표 개선활동’ 주제... 상금·상패 받아

군산의료원이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한 전국 의료질 향상(QI)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의료의 질향상(QI)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평가 항목은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질 향상(QI) 활동을 대상으로 형식의 충실도, 팀 구성 및 참여도, 문제 및 결과분석, 개선활동, 목표 달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평가결과 군산의료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지표 개선활동’이란 주제로 대상 수상과 함께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게 됐다.

군산의료원은 2016년 전라북도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선정과, 보건복지부 전국39개지역거점 공공병원운영평가 A등급 수상, 그리고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질 우수사례 전국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트리플 크라운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다.

김영진 원장은 “앞으로도 군산의료원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으로서 공익적보건의료서비스 시행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시보건소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전주시보건소는 1일 풍남문 광장에서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9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캠페인을 전개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편견·차별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홍보 캠페인은 시민의 자발적인 에이즈 검진을 유도하고,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에이즈바

로알기 리플릿 및 콘돔·핸드크림 배부, △판필 전시, △즉석 에이즈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무료 익명검사 안내 등 일반 시민들이 에이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는 대부분(88%) 성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면서 “에이즈는 당노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일 뿐이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이즈 익명검사 및 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44) 또는 에이즈상담 지원센터(1599-81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도, 전통시장 화재예방 긴급점검 시행

전북도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동절기 관내 전통시장에 대하여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점검은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점검의 일상 생활화, 사고요인의 사전제거,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화재탐지 자동설비 및 소화기, 비상 조명 등의 시설 등 소방설비와 개별 점포의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을 점검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소방서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별 점검 일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 화재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및 신속한 피난 등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화기 사용 및 소화기 관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현직시장이 가능하거나 상인회 또는 소유자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현장시정조치 및 상인들에게 시정토록 계도하고, 공용설비 등 정비 미비사항은 시설현대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